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설치된 '체온측정기구'를 사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3.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내일부터 수도권에는 변경된 방역 4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종교시설은 대면예배로 전환하되 수용인원의 10%까지만 가능하고, 최대인원 99명을 넘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4단계가 유지된다면 기존대로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온라인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5. 이번 주 토요일(8/14) 청소년당은 캄보디아 목장(이현호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8/15) 주일간식담당은 로템목장(정진숙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6. <하늘문의 만나> 8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목상용,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8월 8일	8월 15일	8월 22일	8월 29일
예배기도(2부)		윤형근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이현호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여선교회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1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권용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 이 ■ 부목사 : 김묘상 ■ 협동목사 : 김전희 ■ 전도사 : 박일선  
■ 사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윤형근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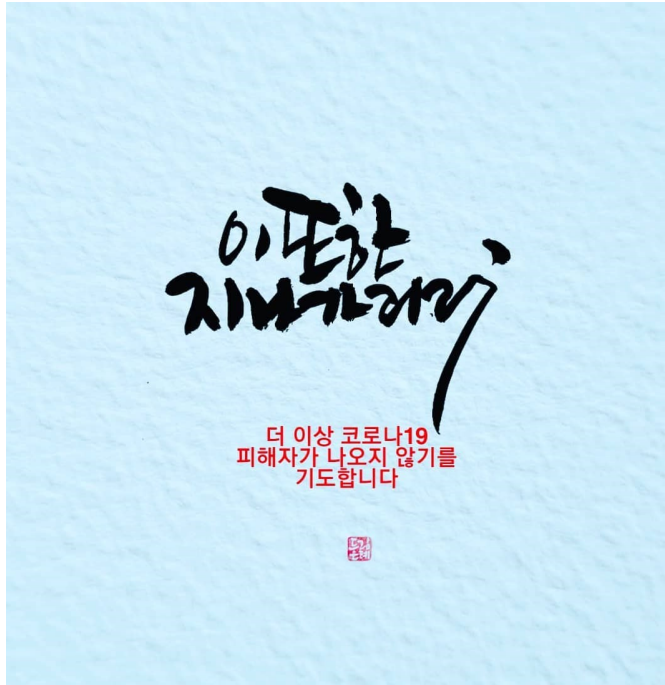
이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편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14:1-8 '변화는 사랑으로'(2)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59)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성화의 삶이란

도쿄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구기종목인 축구 같은 경기에서 승리하면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반면에 그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패하기라도 하면 모두가 낙심합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대부분의 선수들은 메달권에 미치지 못합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의 기쁨과 환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에 충분합니다. 동시에 그 혹독한 훈련을 어떻게 견뎌왔으며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숙연한 마음마저 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경주자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성도들은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음질하는 경주자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달음질하여 받을 상은 무엇일까요? 감동의 금메달일까요? 아닙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입니다.(딤후 4:8)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음질하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없이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제 없이는 성화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모든 일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절제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경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라톤처럼 인생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한 번 절제했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결단이 지속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No Pain, No Gain’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절제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경주는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이지만, 믿음의 경주는 자기 자신과의 지난(至難)한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절제한다면 조금 더 성화된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는 의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Written by 허영진